

고령사회 한국서 우울감 늘어가는 5060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지표

60대, 삶 만족도·행복도 최하...우울감은 가장 높아
60대 소득만족도 10% 못 미쳐...50대도 13.2% 불과
“노동시장 소외→경제적 불안감 지속...빈곤 심각”
“가족 해체로 1인가구 급증...사회적 고립에 우울↑”

지난해 우리 국민의 웰빙(well-being) 인식이 소폭 개선됐지만 50~60대 연령층의 사정은 달랐다.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심했고 삶 자체와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이에 육체적인 불편을 넘어 정신적 측면까지 고려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늘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늘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1점으로 1년 전(6.0점)보다 0.1점 올랐다. '행복감' 역시 6.6점으로 전년(6.5점)보다 개선됐다. 같은 기간 '격정(근심)'은 3.9점에서 3.7점으로 '우울감'은 3.2점에서 2.9점으로 낮아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30대(6.2점)와 40대(6.2점)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19~29세(6.1점), 50대(6.1점)가 이었다. 60대의 만족도는 5.9점에 그쳤다. 행복감 지표에선 19세~40대에서 모두 6.7점으로 높았지만 역시 50대(6.6점)와 60대

(6.5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우울감의 경우 50대와 60대에서 모두 3.0점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우울감이 2.8점으로 가장 낮았고, 19~29세와 40대에선 2.9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족관계, 학교생활 건강평가, 근로·생활 여건, 소득, 소비생활, 체감 환경, 사회안전 인식, 여가활동 만족도 등 생활 전반 분야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의 소득 만족도는 13.3%로 나타났고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15.4%로 낮은 편에 속했다. 만족도가 50%를 넘는 가족관계(56.8%), 학교생활(58.0%) 등과 대비된다.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청년, 중·장년 인구보다 낮았다. 60세 이상 국민의 소득 만족도는 9.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50대(13.2%)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60세 이상이 10.7%로 최하였고 두 번째로 낮은 연령대는 역시 50대(14.1%)였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노동 시장에서 탈퇴하는



시기는 67~68세로 높은 편이지만, 전일제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part-time),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경제적 불안감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허 교수는 "50대의 경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등 가족 해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라며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감이 더욱 높아지는데, 정신 질환과 같이 겹치거나 약 복용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의 28.8%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보면 2인 가구(26.7%), 3인 가구(21.2%), 4인 가구(17.7%), 5인 가구(4.5%), 6인 이상 가구(1.3%) 순이다.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17년 만인 2017년에 이 비율이 14%를 넘기면서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통계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 진입 시기

는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인구를 한 줄로 늘어났을 때 정가운데에 위치한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 역시 지난해 42.6세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 매년 높아져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계산되는 '노령화지수'는 역대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21.8%로 가장 높다. 이외에 경북(19.1%), 전북(19.0%), 강원(18.2%) 등 순으로 높았다.

허 교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문화센터 등을 통한 자발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할데다, 빈곤한 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마련해 어르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리·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기구(NGO)를 많이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도 커지며 본격적인 가격 오름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6.2원 오른 리터당 137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직후 15주째 하락하던 휘발유값은 2월 셋째 주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2월 셋째 주(0.2원)와 넷째 주(3원), 3월 첫째 주(4.4원) 및 둘째 주(9.0원)에 비하면 상승 폭이 더 컸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15.6원 오른 리터당 1275.2원을 기록, 5주 연속 상승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본격 상승 국면 돌입

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SK에너지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6.6원 오른 1389.3원, 경유는 16.0원 오른 1288.2원을 각각 나타냈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4.6원 상승한 1344.5원, 경유는 14.5원 오른 1246.2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리터당 1468.5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93.0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휘발유 가격이 1345.7원으로 서울보다 128.8원 낮았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봄철 공기 정화식물 들여보세요”

농식품부, 스파티필럼·테이블야자 '이달의 꽃' 선정

봄철 미세먼지, 황사가 격정이라면 공기 정화 식물을 들여놓는 것은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벨갈고무나무, 스킨답서스, 황야자(아레카야자), 스파티필럼, 아이비, 테이블야자 등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소개했다.

벨갈고무나무는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 중 하나로 평가

우수하며 아이비는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와 함께 상대 습도 증가량이 많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주요 공기 정화 식물들의 판매량은 지난 1~3월 1년 전보다 123% 늘어났다. 벨갈고무나무 판매량이 367% 뛰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스킨답서스(340%), 황야자(200%), 스파티필럼(108%), 아이비(105%)도 거래량이 대폭 뛰었다.

농식품부는 프리지아, 카네이션과 함께 스파티필럼, 테이블야자를 '이달의 꽃(식물)'으로 선정했다.

‘파산위기’ 에어필립...기업회생·항공기 리스반납 추진

운항 올 스톱...유동성 악화로 존폐기로 내몰려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선정에서 탈락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존폐기로 서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필립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동성 악화로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안건을 통과 시켰다.

신규 LCC면허 취득 실패로 750

억원 규모의 부자유채가 불거짐이 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총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경영 정상화는 안개 속이다. 에어필립의 지분과 운영자금이 구속 수감 중인 영업석 전 대표의 소송과 관련해 추정 보증에 묶여 있어 회생방안 마련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의 LCC 면허 선정 발표를 요양에 두고 지난 3일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운항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항공사의 핵심 자산인 4대의 보유 항공기 리스 반납 절차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운영 자금난에 직면한 에어필립은 지난 1월18일 국제선 무안국제공항 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달 5일에는 무안~오키나와 노선 운항도 중단했다.



지난 3일부터는 국내선 김포~광주, 김포~제주, 광주~김포 노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한때 240여명에 달했던 직원은 현재 30여명만 남아 비상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직원들은 무급휴직 상태에 있지만 지난 1월부터 급여까지 제때 지급되지 않자 사직서를 낸 직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